Mussar of Parashat Beresheet: The Beginning of Creation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Human Soul

Parashat Beresheet begins with the creation of heaven and earth, but beneath the account of creation lies a profound lesson about the human soul. The Torah does not simply explain how the world began. It teaches us how to live within the world that Elohim created. From the separation of light and darkness to the failures of Adam, Chavah, and Cain, Beresheet reveals that human life is shaped by the choices we make, the desires we entertain, and the responsibility we accept before YHWH.

파라샤트 베레쉬트는 하늘과 땅의 창조로 시작되지만, 그 창조 이야기 속에는 인간의 영혼에 관한 깊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토라는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로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빛과 어둠의 구별에서부터 아담과 하와, 카인의 실패에 이르기까지, 베레쉬트는 인간의 삶이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마음에 품는 욕망, 그리고 야훼 앞에서 받아들이는 책임에 의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The first lesson of Mussar begins with the words, “Let there be light” (Genesis 1:3). Before Elohim brought order to creation, the earth was described as formless and empty, with darkness covering the deep. Yet Elohim did not leave creation in this condition. He brought forth light and separated it from darkness. This separation teaches us an important principle: spiritual growth begins with the ability to distinguish between what is good and what is harmful. Just as creation required boundaries, the human soul requires moral discernment. A person cannot develop righteousness while treating truth and falsehood, humility and pride, or obedience and rebellion as though they were the same.

무사르의 첫 번째 교훈은 “빛이 있으라”(창세기 1:3)는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엘로힘께서 창조 세계에 질서를 세우시기 전,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곳은 어둠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로힘께서는 창조 세계를 그러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빛을 나타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이러한 구별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영적 성장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해로운지를 분별하는 능력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에 경계와 질서가 필요했던 것처럼, 인간의 영혼에도 도덕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진실과 거짓, 겸손과 교만, 순종과 반역을 동일하게 여기는 사람은 의로운 성품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Interestingly, Elohim did not eliminate darkness. Instead, He established a distinction between light and darkness, giving each its proper place

흥미롭게도 엘로힘께서는 어둠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고 각각의

(Genesis 1:4–5). This teaches us that spiritual maturity does not necessarily mean the absence of struggle. Rather, it means learning to govern our actions even when conflicting desires exist within us. The discipline of Mussar begins when we recognize these inner struggles and refuse to allow our darker inclinations to determine our conduct.

자리를 정하셨습니다(창세기 1:4–5). 이것은 영적 성숙이 반드시 내면의 갈등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히려 서로 충돌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존재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무사르의 훈련은 이러한 내면의 갈등을 인식하고, 어두운 성향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The creation of Adam introduces another essential lesson. Genesis 1:27 declares that humanity was created in the image of Elohim. This gives every human being inherent dignity, but it also establishes a serious responsibility. To bear the Divine image means that our behavior should reflect the moral qualities that Elohim desires from us. Our speech should be truthful, our judgments fair, and our treatment of others compassionate. The Divine image is not merely something we possess; it is a dignity that calls us to live responsibly.

아담의 창조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1:27 은 인간이 엘로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본래적인 존엄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중대한 책임을 부여합니다. 신성한 형상을 지녔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엘로힘께서 원하시는 도덕적 성품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말은 진실해야 하고, 판단은 공정해야 하며,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자비로워야 합니다. 엘로힘의 형상은 단순히 우리가 소유한 특성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존엄성입니다.

When Adam was placed in the Garden of Eden, he was commanded to cultivate and guard it (Genesis 2:15). Even in a place of abundance, Adam was given work and responsibility. The Torah therefore teaches that human fulfillment is not found in receiving blessings without obligation. Rather, blessings become meaningful when we faithfully care for what has been entrusted to us. Our families, relationships, possessions, and opportunities are not simply privileges to enjoy. They are responsibilities through which our character is tested and refined.

아담이 에덴동산에 놓였을 때, 그는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창세기 2:15). 풍요로운 장소에서도 아담에게는 일과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토라는 인간의 참된 만족이 아무런 의무 없이 축복을 받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신실하게 돌볼 때 그 축복은 참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의 가족과 인간관계, 소유물과 기회는 단순히 누리기 위한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성품이 시험받고 다듬어지는 책임의 영역입니다.

The account of Adam and Chavah reveals how easily desire can distort judgment. The serpent did not begin by openly rejecting Elohim's command. Instead, he questioned it, creating uncertainty about what Elohim had actually said. Chavah then saw that the forbidden tree was good for food, pleasing to the eyes, and desirable for gaining wisdom (Genesis 3:6). Her desire gradually became more persuasive than the command she had received.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욕망이 얼마나 쉽게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뱀은 처음부터 엘로힘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여 엘로힘께서 실제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 후 하와는 금지된 나무가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을 보았습니다(창세기 3:6). 결국 그녀의 욕망은 자신이 받은 명령보다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lessons of Mussar: not everything that appears desirable is spiritually beneficial. The evil inclination, or yetzer hara, does not always present wrongdoing as something obviously evil. Often, it makes disobedience appear reasonable, attractive, or even beneficial. Therefore, a person must learn to examine not only what he desires but also why he desires it. True wisdom requires the discipline to question our motives before allowing them to govern our decisions.

이것은 무사르의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매력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영적으로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악한 성향, 곧 *예체르 하라(יצר הרע)*는 언제나 잘못된 행동을 명백한 악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순종을 합리적이고 매력적이며 심지어 유익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만이 아니라 왜 그것을 원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된 지혜는 자신의 동기가 결정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기 전에 그것을 성찰하는 절제를 요구합니다.

After Adam and Chavah ate from the forbidden tree, they became aware of their nakedness and hid from Elohim. When YHWH called to Adam, He asked, “Where are you?” (Genesis 3:9). This question was not asked because Elohim lacked knowledge of Adam's location. Rather, it invited Adam to confront his spiritual condition.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그들은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엘로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때 야훼께서는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창세기 3:9). 이 질문은 엘로힘께서 아담의 위치를 모르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담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직면하도록 부르시는 질문이었습니다.

The same question can be directed toward every generation: Where are you in your relationship with Elohim? Where are you in your responsibility toward others? Where are you in the development of your character? Mussar requires honest self-examination because spiritual growth cannot begin while we continue hiding from our own failures.

동일한 질문은 모든 세대에게도 주어집니다. 엘로힘과의 관계에서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다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성품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무사르는 정직한 자기 성찰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계속 숨기고 있는 동안에는 영적 성장이 시작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Yet Adam responded by blaming Chavah, while Chavah blamed the serpent. Their responses reveal another weakness of human nature: the tendency to justify ourselves rather than acknowledge our wrongdoing. Although external influences may contribute to our failures, they do not eliminate personal responsibility. The beginning of teshuvah, or repentance, is the willingness to say, “I have done wrong,” without immediately searching for someone else to blame.

그러나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돌렸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인간 본성의 또 다른 약점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성향입니다. 외부의 영향이 우리의 실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개인의 책임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테슈바(תשובה), 곧 회개의 시작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이유를 찾기 전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The account of Cain and Abel develops this lesson further. When Cain became angry because his offering was not accepted, YHWH warned him that sin was crouching at the door, desiring to control him, but that he must rule over it (Genesis 4:7). This verse stands at the heart of Mussar. It teaches that although destructive impulses may arise within us, we are not required to surrender to them.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이 교훈을 더욱 발전시킵니다. 자신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카인은 분노했습니다. 그때 야훼께서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그를 지배하려 하지만, 그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창세기 4:7). 이 구절은 무사르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우리 안에서 파괴적인 충동이 일어날 수 있지만, 반드시 그 충동에 굴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Cain's failure did not begin when he murdered Abel. It began when jealousy and resentment were allowed to grow unchecked. His inability to master his inner emotions eventually produced an outward act of violence. The Torah therefore reminds us that character must be cultivated before a moment of crisis arrives. Anger must be confronted before it becomes cruelty, envy before it becomes hatred, and pride before it destroys relationships.

카인의 실패는 아벨을 살해한 순간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질투와 원망이 통제되지 않은 채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결국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토라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기 전에 성품을 길러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분노가 잔인함으로 변하기 전에, 시기가 증오로 발전하기 전에, 교만이 인간관계를 파괴하기 전에 그것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After Cain murdered Abel, YHWH asked, “Where is Abel your brother?” Cain answered, “Am I my brother's keeper?” (Genesis 4:9). His question exposes the danger of a life centered entirely upon oneself. The Torah's moral vision does not permit us to separate our relationship with Elohim from our responsibility toward other human beings. To honor the Creator while disregarding those created in His image is a contradiction. We are responsible not only for avoiding harm but also for developing compassion, concern, and justice toward others.

카인이 아벨을 살해한 후, 야훼께서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카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라고 대답했습니다(창세기 4:9). 그의 질문은 자기 자신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위험성을 드러냅니다. 토라의 도덕적 가르침은 엘로힘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과 분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창조주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자비와 관심과 정의를 실천할 책임도 있습니다.

As Beresheet approaches its conclusion, humanity becomes increasingly corrupt. Genesis 6:5 describes the thoughts and intentions of the human heart as continually inclined toward evil. The deterioration of society did not occur suddenly. It emerged through the accumulation of human choices, as individuals repeatedly surrendered to their destructive inclinations. What began with one act of disobedience in the

베레쉬트가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서 인류는 점점 더 부패해 갑니다. 창세기 6:5 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계획이 계속해서 악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묘사합니다. 사회의 타락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자신의 파괴적인 성향에 굴복하면서 잘못된 선택들이 쌓인

Garden eventually developed into widespread moral corruption.

결과였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시작된 한 번의 불순종은 결국 사회 전반에 퍼진 도덕적 부패로 발전했습니다.

Yet the portion concludes with a remarkable statement: “But Noach found favor in the eyes of YHWH” (Genesis 6:8). Even in a generation overwhelmed by corruption, one individual could still choose a different path. Noach's example reminds us that righteousness is not determined by the moral condition of the surrounding society. A person remains responsible for his own conduct, even when others have abandoned their responsibilities.

그러나 이 부분은 놀라운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노아흐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창세기 6:8). 부패가 가득한 세대 속에서도 한 사람은 여전히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흐의 모습은 의로움이 주변 사회의 도덕적 상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 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저버린다 하더라도, 각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Core Mussar: The Creation of a Righteous Character / 의로운 성품의 형성

The central message of Parashat Beresheet is that the creation of the world was only the beginning. Every human being must continue the work of bringing order into his own inner life. Just as Elohim separated light from darkness, we must learn to distinguish truth from deception, discipline from indulgence, and righteousness from selfish desire.

파라샤트 베레쉬트의 중심 메시지는 세상의 창조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내면에 질서를 세우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엘로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듯이, 우리도 진실과 속임수, 절제와 방종, 의로움과 이기적인 욕망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Adam teaches us the necessity of accepting responsibility. Chavah reminds us to examine the desires that influence our decisions. Cain warns us of the destruction that follows when jealousy and anger remain unchecked. Noach demonstrates that faithfulness remains possible even in a corrupt generation.

아담은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하와는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욕망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카인은 질투와 분노를 다스리지 않을 때 어떤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경고합니다. 노아흐는 타락한 세대 속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Ultimately, Mussar teaches that righteousness is not established through one extraordinary act but through the daily refinement of character. Every truthful word,

궁극적으로 무사르는 의로움이 단 한 번의 특별한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품을

restrained impulse, humble confession, and compassionate action contributes to the formation of a soul that more faithfully reflects the image of Elohim.

다듬어 가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고 가르칩니다. 진실한 말 한마디, 절제된 충동, 겸손한 잘못의 인정, 자비로운 행동 하나하나가 엘로힘의 형상을 더욱 충실하게 반영하는 영혼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The deepest lesson of Beresheet is this: Elohim created the world and declared it good, but He entrusted humanity with the responsibility to choose what is good. Our task is to bring the light of His righteousness into our thoughts, our actions, and our relationships, one decision at a time.

베레쉬트가 가르치는 가장 깊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엘로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선하다고 선언하셨지만, 무엇이 선한지를 선택해야 할 책임은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매 순간의 선택을 통해 그분의 의로움의 빛을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 나타내는 것입니다.